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2일 월요일 음 11월 2일 (9월)

기상정보

흐림



제주도는 구름 많고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2℃, 낮 최고기온은 18~19℃로 예상된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외출 시 우산을 챙기는 게 좋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for the morning and afternoon.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Island.

Table with UV index and mountain fire risk levels.

Table with PM10 air quality index.

Table with PM2.5 air quality index.

Table with 24-hour temperature and weather forecasts.

월드뉴스

트럼프 “BRICS, 달러 패권 도전시 관세”

“미국, 좌시하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소셜 계정을 통해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 나려고 하는데, 미국이 옆에서 지켜보지만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밝혔다.

이러 트럼프 당선인은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수출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목한 브릭스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입한 연합체다.

브릭스 내에선 러시아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달러의 대안을 찾자는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해 모디 인도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달러의 무기화”를 언급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10년 전부터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백록담



이상민 행정사회부장

제주도가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불법 투성이었다. 법령 위반만 7건에 달했고, 이중 3건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판단돼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한림해상풍력이 제주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공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해도 제주 전체 자연환경을 개발의 밀전으로 삼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자는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아래 제주에서 가장 보전 가치가 높은 절대보전지

제주도도 특별점검 받아라

역(이하 보전지역)과 공유수면 등을 보란 듯이 무단 개발·이용했다.

사업자는 한림읍 일대 보전지역 중 985.1㎡만 개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710.77㎡ 넓은 1695.8㎡에서 공사를 했다. 제주시는 당초 사업자의 보전지역 무단 개발 면적을 375.7㎡로 판단했지만, 이후 측량 결과 이보다 335㎡ 넓은 710.77㎡에서 무허가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도 허가 범위를 무려 4740㎡나 초과했다.

온갖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행정은 ‘까막눈’이었다. 사업자가 만약 이른바 ‘사후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일은 유아무야 넘어갔을 것이다. 행정은 지난해 11월 이미 보전지역에서 무허가 공사를 마친 사업자가 해당 구역도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뒤늦게 허가를 달라고 신청하자 그제야 불법을 알아챘다.

그 이후 벌어진 일은 또 어떤가. 행정은 불법을 인지한 지 7개월이 지나야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튿날에는 사후 허가 신청도 수용했다. 행정 스스로 불법이라고 규정 한 무허가 공사 시설을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합법으로 탈바꿈 해줬다.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행정은 ‘실의가 없다’며 허가를 유지했다.

해명도 뒤죽박죽이다. 풍력발전 사업을 위해선 인근 하천도 점용해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지도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 언론의 지적에 행정은 이후 이뤄진 ‘변경 허가’로 하천 점용을 고지했고, 또 이는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논란의 보전지역 사후 허가의 경우 법률 자문 결과 위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도

허가를 내줬다. 왜 이견 법률 자문을 따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행정은 이번엔 ‘정책적 판단’을 들먹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아닌가. 이렇듯 거면 왜 혈세를 주며 법률 자문을 얻는단 말인가.

결국 총착역은 모두 한 방향으로 가리고 있다. 슬한 논란을 뛰어 넘고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들 사업자 입장에선 벌금 얼마 내면 그만이다.

결과적으로 6000억짜리 공공사업을 지켜내는 데 성공한 것 같다. 하지만 그동안 지켜온 행정 원칙을 잃고 말았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림해상풍력발전 특별 점검한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정작 점검 대상은 제주도인 것 같아 하는 소리다.

엘린마당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 ‘적십자회비’



정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회장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무고한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국제적십자사는 창시자인 장 앙리뒤낭이 솔페리노의 전장에서 외쳤던 “모든 사람은 형제다”라는 마음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도주의 정신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첫 번째 손길이 되었다. 중부지역의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튀르키예 지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 현장과 분쟁지역에 달려가 구호 활동을 펼치고 이재민들을 보살폈다.

제주적십자사 역시 4·3사건과 6·25전쟁을 겪으며 상처받은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이재민 구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해 재난심리 회복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종자 수색 요원들을 위한 구호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어려운 이웃에 맞춤형 물품 지원, 난치병 학생 돕기, 범죄피해자 지원 등 소외된 이웃의 건강한 자립과 함께 행복찬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은 여러분이 정성껏 모아준 소중한 성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올해도 변함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한 적십자회비 성금 모금을 시작한다.

올바른 구급차 이용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고태준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폭설과 의료 파업 등 악조건 속 비응급 환자들의 부적절한 구급차 이용으로 인해 응급 환자들의 처치가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비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시간 동안 관할 지역엔 구급차 공백이 발생해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요하는 중증응급환자가 필요한 처치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구급대원이 비응급 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7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다만, 섭

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의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위 항목 이외에도 예약된 외래진료를 위한 병원내원 등은 구급차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병원 및 약국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처치 방법 안내, 재외 국민에 대한 응급의료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인제는 119로 연락해 위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한국요양원.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대상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우수탐지·방수.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공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